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가 주관하는 ‘2008 제16회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이 지난 달 13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27개의 단체 및 개인 정부 포상이 이뤄졌으며 (주)하이닉스반도체의 남정곤 전무가 석탑산업훈장을, 권혁은 (주)하나로티앤에스 대표와 김정환 한국물류전략연구소 소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한국물류대상은 1993년 제정되어 올해로 16번째를 맞고 있는 국내 유일의 물류부문 정부포상이다. 한국물류대상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류혁신 노력을 통해 국가경제의 비전과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의 물류혁신과 가치창출에 크게 노력한 기업(기관)과 개인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과 물류혁신 풍토조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유통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본 고에서는 2008 물류대상 일부 수상자들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 편집자 주 —

석탑산업훈장



남 정 곤

(주)하이닉스반도체 전무

(주)하이닉스반도체 남정곤 전무는 하이닉스반도체가 글로벌 SCM(공급사슬관리) 합리화를 통해 Visibility를 확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반도체 업계 세계 6위, 메모리반도체업계 세계 2위의 글로벌 메모리 생산기업으로, 2007년에는 매출실적 8조 4천억원을 기록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국내 이천, 청주사업장과 중국 Wuxi, 대만 ProMos 등 해외 생산기지를 포함, 4곳의 생산기지와 8개의 해외 판매법인을 운영하면서 전세계 287여 개의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하이닉스반도체는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0년 반도체업계 세계 3위, 2017년에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전문회사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반도체산업은 FAB(Fabrication ; 생산공정)당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는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류부분의 다각적인 혁신 활동을 추진해왔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이 글로벌 SCM을 통한 Visibility의 확보이다. 남정곤 전무는 본사와 해외 법인을 연계한 제품정보 표준화, 실시간 재고관리 체계 개선, 국내 및 국제 운송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하이닉스반도체가 반도체 주요 제품군의 수요 변화와 고객의 Needs에 대응할 수 있는 Global 물류네트워크와 전략적 물류 관리체계 확립

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4세대 및 양방향 STB(Side Track Buffer) 운영을 통해 물류 운영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및 RTD(Real Time Dispatcher)와 완벽하게 연계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제조 품질과 생산성 극대화를 이끌었다.

2006년에는 창고의 단일화, 표준화, 통합화를 통해 제품 관리에 대한 가시성을 향상시켰고, 품질사고 예방활동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반품, 완제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고객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각 법인별로 관리되던 재고를 본사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적시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딜리버리하여 고객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단시간에 많은 물량의 이동이 진행되고 적시 출고가 요청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 Needs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제품 창고 혁신 활동을 전개했다.

산업포장



권 혁 은

(주)하나로티앤에스 대표이사

항공 및 해상 국제 물류업, 3PL, 수출입 통관, 화물보관, 일반 및 보세운송, 관세 환급, 외환업무, 물류컨설팅 등 물류 전반의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회사인 하나로티앤에스의 권혁은 대표가 2008 물류대상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하나로티앤에스는 1999년 삼성전자에서 분사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9개의 국내 거점과 해외 9개국 15개 해외 현지법인을 두고 있다. 또한 전세계 140

여 개의 전략적인 파트너 망을 확보하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망을 통해 전세계 어디서나 하나로티엔에스만의 노하우가 축적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로티엔에스 권혁은 대표는 사업규모 확대에 발맞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회사 개선 및 혁신 사업에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02년 말 '시스템 물류기업으로의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 정보화 개선 사업은 2년여의 지원과 개발 노력 끝에 첫 결과물인 'EILIS(엘리스- Export Import Logistics Information System)를 완성했다. EILIS는 물류업계 최초로 개발된 XML기반의 EDI 송수신 가능 통합 물류 시스템으로 인터페이스 기능이 뛰어난 것이 특징으로 국내외 화주와 파트너 및 해외지점, 관세청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나로티엔에스는 EILIS를 통해 물류 전반의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수행 할 수 있게 되었으며 EILIS 내에 '서비스 지표관리' 기능을 구현해 적기 공급을 향상과 고객별 업무 이력 관리 기능을 구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 밖에도 GPS를 이용하여 화물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EILIS로 전송하는 '화물 위치추적 시스템'을 개발·운영 중에 있다.

또한 'RFID 물류 관리 시스템'을 개발, 화물의 이동에 따라 서류 발행부터 재고 관리까지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화물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하나로티엔에스 권혁은 대표는 표준화 작업을 통해 고객에게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데도 기여했다.

표준화 작업의 첫 단계로 ISO 14001과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여 기업운영 및 관리 절차에 표준을 수립했다.

또한 EILIS 개발과 함께 추진된 문서 표준화 작업은 거래처 별로 달리 수작업으로 작성되던 문서를 시스템 통하여 한 개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화물 관리 표준을 수립하여 화물 이동의 신속성, 정확성 및 사고율 감소라는 개선 효과를 보기도 했다.

권혁은 대표는 또한 고객의 다양한 여건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물류 공동화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산업포장



김 정 환

한국물류전략연구소 소장

1976년에 물류에 입문한 한국물류의 산증인으로 우리나라 물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한국물류전략연구소의 김정환 소장이 '2008 물류대상 산업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김정환 소장은 물류현장 개선과 기계화·자동화·정보화·공동화·표준화 등 다방면으로 우리나라 물류발전에 이바지하고 인재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많은 물류인재를 육성하는데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정환 소장은 지난 1980년에 (주)태평양 물류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여 생산되는 전제품을 T-11(1100×1100mm)형 파렛트에 적합하도록 표준화했다. 이를 통해 포장상자 96종을 13종으로 축소했고 보관랙과 하역 및 수송을 전량 T-11형 파렛트화하여 막대한 비용절약과 생력화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또한 이것이 모범이 되어 타사에도 파렛트화하는데 촉매 역할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에서 처음으로 파렛트 수송을 1981년부터 시작했고 그해 11월에는 T-11형 파렛트의 자동창고를 대구 비산동에 건립하여 표준화, 기계화, 자동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1993년부터 2007년도까지 15년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산업표준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물류부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물류표준규격제정과 ISO 규격의 부합화, 시대의 흐름에 따른 KS규격을 제정, 개정, 폐기하여 물류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규격관리를 했다. 특히 1995년에는 유닛로드시스템통칙을 제정하여 물류합리화에 기여하였고 후속조치로 ULS관련기기 표준해설서와 ULS구축기 본지침서, 파렛트시스템 설계기준을 제정하여 유닛로드시스템 보급 확대 기여한 공이 지대했다.

1992년에는 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 전무이사로 부임한 김정환 소장은 1997년에는 협회 상근부회장직을 역임하면서 회원사의 물류개혁, 표준화·합리화,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나라 물류산업발전에 큰 성과를 이룩했다.

정부 정책에 있어 국정자문위원, 건설교통부, 물류표준화추진위원, 통상산업부 산업표준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물류합리화 사업선정 심의위원, 해양수산물 수산물유통개선개혁자문위원, 수출품품질표준검사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 물류정책자문위원, 행정자치부 도로명 및 건물부여 실무기획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물류정책에 자문역과 심의위원으로 우리나라 물류발전에 지대한 공을 이룩했으며 교통개발연구원 자문위원과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자문위원, 규제개혁작업단 자문위원, 유통합리화사업선정 심의위원, ISO품질인증원 기술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여 우리나라 물류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통령표창



최 광 식

(주)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

(주)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최광식)는 창립 이래 송유관을 건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꾸준한 혁신으로 물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내 에너지물류 산업을 선도하고 해외에 그 기술을 전하는 등 물류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도 한국물류대상(공공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DOPCO는 유류의 육·해상 운송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교통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거리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고 휘발유·등유·경유·항공유 등 경질유를 수송하는 국내 유일의 송유관 건설 및 운영회사로서 1990년 정부와 민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전국 주요도시와 공항, 비축기지를 연결하는 1,104KM의 전국송유관망, 동양 최대인 판교저유소를 비롯한 4개의 저유소망을 통해 매년 전국에서 소비되는 경유, 휘발유, 등유, 항공유 등 경질유 소비의 53.4%를 수송함으로써 국내 에너지물류의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꾸준한 혁신으로 물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2006년 정부로부터 우수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송유관을 통한 수송비가 유조차의 1/4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총 766억원의 직접물류비 및 수천억원의 간접물류비 절감을 이루었고, 도로부문 교통과 밀도 3% 완화로 투자소요 1조 3천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더욱이 생산지와 소비지가 이격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타 수송수단에서 필연적으로 발

생되는 공차, 공선운행을 시스템적으로 제거하여 물류시스템의 전기를 이루어 유가안정에 기여하였고, 또한 저유소 및 송유관의 평균 저유량이 440만 배럴에 달하여 우리나라 경질유 소비의 6일분에 해당하는 석유제품 비축효과가 있으며 송유관의 지하매설로 국토이용효율 극대화, 주요 거점도시에 대한 석유수급 원활화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등 많은 간접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다년간 축적된 송유관 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전개, 저장탱크에서 유조트럭으로 유류가 적재되는 과정을 감시·제어하는 트럭출하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물량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함으로써 유조트럭기사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출하 시 정해진 물량만큼 출하되도록 제어하는 전자출하제어기의 대체장비를 자체 개발하여 효율적인 출하가 가능토록 하였다.

대통령표창



김 준 희

(주)웅진씽크빅 대표이사

2000년 이후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성장하고 있는 (주)웅진씽크빅(대표이사 김준희)은 출판물류 발전을 선도하고 물류관련 산업을 활성화한 공로로 2008년 한국 물류대상(제조/유통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웅진씽크빅의 물류혁신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2년부터 으로 물류혁신 내용은 물류거점 통합, 물류장비의 자동화 및 현대화, 아웃소싱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웅진씽크빅의 물류장비 자동화 및 현대화 노력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자동창고의 도입이다. 자동창고 도입 시 주요 검토 항목은 동일 물동량

보관과 출고 시 평치창고 대비 투자 효과, 자동창고의 보관기능 보다는 출고 및 보충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출고 및 보충기능 강화 목적을 달성하고자 찾은 대안으로 당시 자동창고는 전면부에서 적재화물의 입출고 기능을 하는 것이 주 운영방법이었던 것을 후면부에 보충기능을 두어 S/C(Stacker Crane) 4대가 일 500 파레트 화물이 출고되어 일부 상품을 보충하고 나머지는 자동창고로 재입고 되는 방식을 설계하고 적용하였으며 보충기능 속도를 맞추기 위해 당시 Pallet Type으로는 가장 빠른 분당 200m를 주행할 수 있는S/C(Stacker Crane)을 도입하였다. 둘째, DPS(Digital Picking System) 도입 시 기존 DPS에서는 고정된 피킹작업구간에 고정된 인원이 투입되어 작업함으로 작업자별 작업종료시간 편차가 발생하여 작업평준화가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일 작업량을 당일 투입인원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여 피킹작업구간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개선하여 적용하였다. 대전 통합물류센터 건립 시 DPS 도입으로 작업 생산성 30% 향상, 피킹작업 정확도 향상, 인력 이동 시 대체 용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CPS(Cart Picking System) 도입이다.

DPS도 다품종 소량상품을 피킹하는데 효율적인 시스템이지만 다품종 초소량 상품을 피킹하는데 DPS 적용이 적합하지 않아 새로운 피킹방식으로 CPS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국내에는 시제품이 없는 상황이었다. 새로운 피킹방식의 필요성 때문에 DPS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와 개발에 들어가 Process 설계, Test용 Cart 제작, 시범 Test 실시, 보완작업 등을 거쳐 CPS를 도입하게 되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표창



최 문 철

롯데로지스틱스(주) 대표이사

롯데로지스틱스(주)(대표이사 최문철)는 1996년 롯데그룹과 일본미쓰이 물산의 합작회사로 설립되어 세븐일레븐을 시작으로 그룹 유통업체의 물류 전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06년부터는 식품, 석유화학, 일반제조 부문으로 확대, 물류공동화를 통한 Synergy 창출로 2007년 매출액 3,006억원을 달성하였다.

물류영역 확대 과정에서 거점, 차량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데다 선진 IT 기술을 활용한 최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옴은 물론, 다양한 부문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종합물류기업으로써 사업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매출액 1조원의 종합물류회사, 국내 3PL 선두주자”를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간 추진해 온 롯데로지스틱스의 물류혁신 성과는 물류거점 대형화 및 자동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물류정보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성됐다.

물류거점 대형화 및 자동화 분야의 개선 성과로 동양 최대규모의 오산물류센터와 국내 최초의 램프식 구조의 구로물류센터 구축을 꼽을 수 있다.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오산물류센터는 상온동과 저온동으로 건설되었으며 동양 최대규모(약 10만 8900㎡, 축구장 13개 크기)의 센터이다. 오산물류센터는 규모뿐만 아니라 시간당 1만 7천 Box를 처리할 수 있는 오토소터, 물류센터 중앙관제 시스템, PDA 등 자동화 설비 및 IT시스템을 도입한 최

첨단 물류센터이다.

또한 에어헬터, Dock house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 전 과정에서 철저한 온도관리가 가능한 콜드체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로지스틱스는 경남 김해시에도 동일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물류센터를 구축 중에 있다.

오산물류센터 이외에도, 서울 구로구에 자동화 물류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 구로물류센터는 국내 최초로 램프식, 복층 구조의 물류센터로 뛰어난 공간 활용률을 자랑한다. 롯데로지스틱스는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선진물류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물류기업을 선도하고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물류정보 시스템 부문은 WMS 및 TMS, 물류회계시스템 구축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롯데로지스틱스는 WMS를 도입, Location 관리(수량, 납품시간, 상품의 선도 등), KPI 관리 및 분석 등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대한 대응을 최저비용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국무총리표창



원 영 희

보광로지스(주) 대표이사

국내 편의점업계 1위인 훼미리마트의 물류대행업체인 보광로지스(주) 원영희 대표이사는 유통 및 물류분야에서 34년간 몸담아오며 1990년 훼미리마트 초기개점 창립멤버로서 일본 훼미리마트와의 기술제휴에 따른 선진물류 기법을 연수, 도입하여 국내 편의점의 특성인 다품종 少量 당일배송 및 신선식품의 당일 2회 배송을 위한 물류공급체계를 개선, 신선식품의 유통기한준수 철저로 소비자

위생개선 및 건강만족을 제공하고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였다.

편의점 증가와 물류센터의 전국 확산에 따른 운영상의 지표향상 및 물류시스템 개선업무에 혁신을 주도하여 물류시스템의 체계화와 종합물류센터로서의 사업 영역을 확대, 비약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아웃소싱을 활성화하고, 선진 IT 물류 정보화, 시스템화, 표준화, 안정화, 공동화, 새로운 물류 시스템 개발 등 업계 및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

“새로운 물류센터를 만들자”라는 경영목표 아래 원칙과 정도준수, 차별화된 고객만족 서비스개발, 배송관리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의식과 조직의 직무능력 향상과 같은 세부계획으로 물류혁신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2007년 통합 물류평가 1위를 이룩하였다.

물류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위생시설 보수 및 확충을 하였으며 고객에게 최상의 상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재고관리 기준을 강화하기위해 유통기한관리와 상미기한관리를 가장 까다롭고 자동화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유통기한 관리 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물류혁신에 이바지하고 있다.

다품종 소량상품을 누구나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그래프형 ABC분석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출고 빈도가 높은 상품을 전면 로케이션에 배치하고 낮은 상품은 후면 로케이션에 배치하여 작업자간 평균화된 작업량 분배 등 최적의 적재효율과 작업효율을 낼 수 있는 효율적인 로케이션 관리로 생산성을 높이고 미, 오출을 줄여 물류시스템 발전을 한 단계 높였다. 또한 원용희 대표는 외길인생 34년 물류분야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물류 서비스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책임감

으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새로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진화된 물류기법 도입 및 개발을 통한 한국을 대표하는 물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표창



류 철 호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는 보유자산과 도로기술 전문성을 축적하여 고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으뜸 국민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1969년 창사 이래 40년간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에 매진한 결과, 현재 전국 25개노선 3,143km의 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금년에 한국도로공사가 한국물류대상 공공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것은 고속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하이패스 전국구축과 교통정보제공을 통한 교통 지·정체 해소, 그리고 국가물류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고속도로변 물류시설 개발 등 국가물류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바가 크고 물류인재양성과 혁신 활동 등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본다.

한국도로공사는 2007년도 한 해동안 신속한 고속도로 서비스를 위해 청원~상주, 현풍~김천, 익산~장수, 고창~담양, 무안~광주 등 5개 구간 251.1km의 고속도로망을 확충했다.

고속도로망의 신설·개통으로 연간 7,123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운행거리 81km, 운행시간 165분을 단축하는 성과를 보이고, 고속도로 교통혼잡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 지능형 고속도로인 “스마트하이웨이 (SMART Highway)” 개발사업도 한창 추진 중이다. 스마트하이웨이는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 VC-10」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운전자와 자동차·고속도로를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해 안전하고 편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첨단 기술의 복합체이다. 2015년 첫 구간이 완공될 제2경부고속도로 30km 구간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여 2017년 상용화 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Hi-pass)의 날’로 선포한 지난 10월 6일에는 하이패스 이용률이 30%를 넘어서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 하이패스를 개통한 이후 9개월만의 일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구축을 통하여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의 지능화·첨단화를 주도하고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생태계를 보호하고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보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국무총리표창



강 중 현

(주)삼진글로벌베넷 대표이사

(주)삼진글로벌베넷(대표이사 강중현)은 냉동제품 물류 근대화의 필요성을 내다보고 1986년 부산에 냉동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1990년 부산 제2공장, 1993년 경기도 광주에 광주 제1공장을 건설한 데 이어 2003년 광주 제2자동화 냉동공장, 그리고 2005년에 광주 제3자동화 냉동공장을 증축함으로써

수도권 물류 중심기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화 냉동공장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완공된 경기도 광주공장은 입지 조건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시스템과 규모면에서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냉장, 냉동 물류 ERP 도입 등으로 관리인력과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입출고를 실현하여 LEAD TIME 단축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였고,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TOTAL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지 4,500평, 연건평 1만평 규모의 넓은 하역장과 전자동화 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입·출고 관리가 가능하고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냉장 전용 입·출하장 및 저장시설, 일반 냉동실, 자동화 냉동실, 신선육 보관실, 급속 동결실, 일반 제품 보관실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 보관능력 7만톤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삼진글로벌베넷은 1970년부터 한국 전통음식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자사 고유 브랜드인 “왕(wang)”으로 수출을 시작,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식품 전문업체로 우리 식품개발에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인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을 찾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LA, 뉴욕 등 미국내 10개의 지사와 전 세계에 걸친 국제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우리 음식을 수출하는데 원활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부산공장이 HACCP(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인증획득과 동시에 EU 등록 공장이 됨으로서 소위 위생적인 일류 공장임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EU, 미국 등 각국에서도 이미 자국내로 수입되는 몇몇 식품에 대해 HACCP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HACCP의 인증은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국무총리표창



박 정 천

(주)케이엘넷 대표이사

물류 IT 전문기업 (주)케이엘넷(대표이사 박정천)은 전자문서 중계서비스(EDI)를 기반으로 한 전자물류 서비스를 비롯해 SI사업, 솔루션 개발, IT아웃소싱 등 물류 전 분야에 걸친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공로로 '2008 한국물류대상 물류기업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물류정보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4년 물류관련 기관 및 업·단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케이엘넷의 IT서비스는 해운, 항만, 철도, 터미널 등 수출입 업무절차나 물류 프로세스 과정에 활용되어 기존에는 종이서류와 팩스, 전화, 우편 등으로 전달하던 각종 서류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처리하고 또한 관련주체들이 각종 정보를 공유하여 비용 절감과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고객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케이엘넷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전자문서 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서비스는 B2G와 B2B로 구분되어 있다. B2G서비스는 정부 기관과 기업이 각종 수출입 인허가 업무를 EDI이라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시간 단축 및 서류 축소 등 업무효율화를 실현하여 물류비 절감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B2B 서비스는 기업의 물류관련 서식을 EDI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해운 회사를 비롯해 포

워드, 운송회사, 터미널 등 수출입물류 공급자와 수요자간 Booking, 운송장, 운송결과, 선적서류, 검수 업무를 전자문서교환(EDI)방식으로 교환 활용하여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전달 및 공유, 재활용 등 업무효율화를 실현하여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항만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해운항만물류통합시스템인 프리즘(PLISM)은 수출입 물류과정에서 수반되는 선사, 장치장, 운송사, 검수사, 포워드, 화주 등 관련주체들의 내부 업무 및 물류 주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선박의 운항 업무, 컨테이너 선적 및 인도 업무, 환적업무를 표준화된 시스템에서 공동 활용하는 협업시스템으로 항만물류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로 2000년 '대통령표창 수상', 2002년 '한국로지스틱스 대상 수상', 2007년 'e-ASIA award에서 국내 최초 민간기업부문 수상'에 이어 올해 열린 'SW기업경쟁력 대상 ERP/SCM/CRM 부문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물류IT분야의 선도 기업임을 입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백 종 실

평택대학교 교수

평택대학교 백종실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20년간 해운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 육성, 물류정책기본법 등과 관련된 산관학연 협동연구와 정책자문을 수행해왔고, 대학에서 전문물류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연구과제로

서 국가물류체계효율화 방안(2005년), 두만강지역 복합운송체계 구축방안(2005년), 동아시아 물류구조변화와 국제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2003년), 한반도 글로벌 물류중심화 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2003년), 철도물류체계의 경쟁력 제고방안(2003년), 항만노무상용화 방안(2002년) 등 다수의 과제를 수행하여 국가물류정책과 제도 수립에 기여하였다. 특히 컨테이너운송을 포함한 해운을 비롯한 복합운송, 물류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3PL 등에 대한 보고서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국내 물류산업계와 정책담당자 그리고 수학중인 후학들에게 물류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2007년 평택대학교 물류정보대학원에 물류분야의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주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물류관리사와 유통관리사, 물류심화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물류인력을 양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상임이사 및 편집이사, 한국해운물류학회 이사, 한국물류학회 편집위원으로서 학술대회 발표와 논문심사 등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또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물류관리사 시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물류관리사 시험 선정위원 및 출제위원으로 다년간 활동하였으며, 종합물류기업 인증위원과 물류표준설비 인증위원으로 2005년부터 2007년말까지 활동하였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물류유통분야 규제완화 실무위원, 감사원 건설물류 감사국 자문위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광주광역시 물류정책 및 자문위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001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



김 종 태
(주)팬스타 부사장

팬스타 그룹의 모기업인 (주)팬스타는 1990년 창사 후 부산-오사카간 카페리 선사인 (주)팬스타라인닷컴과 일본현지법인인 (주)산스타라인, 선박 및 선원관리와 내륙운송을 담당하는 (주)팬스타트리 등을 포함하여 총 6개 계열회사로 구성된 종합 물류그룹으로 성장해왔다.

고객에게 일하나 만큼은 똑부러지게 한다는 칭찬을 듣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물류전문가들이 모인 회사, 소프트웨어가 강한 회사로 키운다는 것이 회사 대표이사인 김현겸 회장의 기본 철학이다.

그러한 튼튼한 저변은 (주)팬스타가 복합운송 분야에서 타 기업과 다른 경쟁력을 갖게 되고 1999년 일본 현지법인이 (주)산스타라인의 설립과 (주)팬스타라인의 설립으로 이어져 한일간 카페리 항로 투입을 위한 양국간 단일한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며 마침내 2002년 4월 23일 팬스타드림호(총톤수 21,535톤, 220TEU)를 투입하여 부산-오사카간 카페리항로를 취항하게 된다.

기존 카페리선사들은 부산에서 가까운 관문지역이나 큐슈지역을 운항하는 항로였지만, 팬스타 드림호는 일본의 2대 상권인 한신지역의 중심지 오사카를 직항함으로써 일본의 심장부로 다가가는 항로를 열었다는 의미와 함께, 기존 화물선사들의 물류와 달리 RO/RO선의 안전한 하역이라는 장점과 더불어 18시간 운항 및 도착당일 통관시스템을 통해 급송화물 수송에 최적의 물류로써의 Mode Shifting을 이룸으로써, 신선도를 요하는 농산물이거나 고가의 반도체 장비 및 급송을 요하는 화물의 수

출 경쟁력을 배가시켰고, 한국과 일본간 국제무역에서 재고없는 물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의미를 지니는 항로를 개척하였다.

또한 7년여 세월을 일본 재무성을 통관면허를 신청한 결과 결국 2006년 11월 일본기업도 받기 어려운 "통관업" 면허를 받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한국의 수출화물이 일본 도착즉시 (주)산스타라인이 직접 통관 처리하고 가장 신속하게 일본의 최종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급송시스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산스타라인은 명실상부한 종합물류기업으로써 일본에 확고히 뿌리내리게 되었고 지금은 오사카 뿐 아니라, 2008년 말까지 동경에서도 통관면허 획득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한 문 환

한국공항(주) 대표이사

한국공항(주) (대표이사 한문환)은 1968년 창립하여 약 40년간 국내 최고의 항공기 지상조업사로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한국공항(주)은 인천 및 김포공항을 비롯한 국내 11개 공항에서 대한항공 및 외국 항공사에 항공기 지상조업, 항공 화물조업, 항공기 급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에 일조하고자 물류기 렌탈사업과 석회석 광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주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수 및 농축산사업과 더불어 제주 민속 문화 보존을 위한 민속촌 운영사업까지 사업범위를 다각화 하고 있다.

세계 10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오랜 파트너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한국공항(주)은 2002년 8

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조업품질 인증서 AHM 804를, 2003년 7월에는 ISO 9001와 ISO 14001을 획득하여 세계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인정 받았다. 같은 해 Ground Handling International로부터 아태지역 최우수 조업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현재는 국내의 항공사로부터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ISAGO(IATA SAFETY AUDIT FOR GROUND SERVICE)' 인증을 목표로 최적의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명실공히 글로벌 조업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항공화물 수출입 전 공정에 바코드를 읽어내는 PDA를 활용함으로써 관리실명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였고, 화물정보 실시간 조회 기능을 구현하여 고객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였다. 항공화물터미널의 운송설비와 Interface가 가능한 ev-System을 통해 가시적으로 물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항공사와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항공물류산업의 글로벌화 및 환경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국공항(주)은 첨단 기술 및 시스템 도입 등 물류 혁신을 위하여 지난 40년간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국토해양부장관



신 명 철

엠엘씨월드카고(주) 대표이사

엠엘씨월드카고(주)(대표이사 신명철)는 국제화물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물류기업으로써, 국내 우수 기업들에게 최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2년 설립 이래, 항공,

국토해양부장관



김 영 수
(주)이랜드월드 대표이사

1980년 이대앞 2평 옷가게를 오픈한 이래 끊임없이 성장해온 패션/유통 전문기업인 이랜드 그룹(회장 박성수)은 아동, 내의, 숙녀, 식품부문의 (주)이랜드월드를 필두로 성인 캐주얼의 (주)이랜드, 국내유일의 패션할인 백화점인 (주)이천일아울렛, 백화점 사업의 (주)뉴코아, 캐릭터사업과 인터넷 사업의 (주)리드, e-business 전문 컨설팅 회사인 (주)이랜드시스템스, 가구부문의 (주)프란시아, 학교/교회건축 전문회사인 (주)이랜드 건설 등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랜드 그룹은 창립 초부터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생산은 '아웃싱', 마케팅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고 본사는 기획과 머천다이징 및 디자인 기능을 보유하는 차별화된 사업설계와 중저가 캐주얼 시장이라는 틈새시장을 개척&선점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지난 '97년초 IMF 위기가 닥치기 전 자체 구조조정을 착수한 결과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1998년부터 2년간 BSC와 KMS 등 지식경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2001년까지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구축된 인프라를 사용하여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내는 지식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2003년까지는 시장을 포함한 경영시스템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학습조직의 구축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21세기 지식혁명의 대명사이자 고수익을 창출해내는 알짜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재무적/비재무적 역량을 바

해상 등의 기본적인 운송 서비스를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담당할 뿐만 아니라, 물류 IT, 물류프로세스 개선, 물류비 절감 등 물류산업의 선진화, 효율화를 꾀할 뿐 아니라, 화주기업의 물류운영에도 일조해왔다. 특히, 1990년대 말 물류 IT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물류 시스템 개발 및 발전을 선도하여 물류의 가시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또한, 글로벌화에 따른 화주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구미, 인천, 부산지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류 운영을 위한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비엔나, 폴란드 브라초프,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브라질 마나우스, 상해, 남경, 광주에 모두 13개 지점망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 말 물류 IT System 개발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한국 물류 기업의 발전을 향한 선도적인 가치 창조의 System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으며, 각 화주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을 함으로써 고객 맞춤형 물류 System을 진화시켰다. 또한 화주와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EDI 구축, 본사-지점 간의 인터페이스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중국, 미주, 구주 내 13개의 지점 설립 및 운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물류 운영이 가능하며, 각 지점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현지 내륙운송 등 독립적인 비즈니스 유치 또한 힘쓰고 있다.

또한 방학기간을 이용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학생들을 예비 물류인재로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더욱 전문적인 물류 전문인력 육성과 물류 연구를 위하여, 국제 산학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학계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숭실대학교와 중국 심양 항공공업대학과 공동으로 동북아 물류연구소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 및 연구활동을 개최할 계획이다.

탕으로 2003년에는 (주)데코, (주)뉴코아에 대한 M&A와 6개 패션브랜드 인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2008년도 현재 57개의 패션 브랜드와 2001 아울렛, 뉴코아, 해태마트 등의 유통점 등의 성장을 바탕으로 10조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김 대 준

공군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
전대장

공군 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제16회 한국물류대상 '공공부문'에서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60수송전대가 수상한 한국물류대상은 물류혁신을 통해 조직의 가치창출에 기여한 기관이나 기업에 주어지는 상으로 국내 유일의 물류부문 정부포상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는 웅진씽크빅, 한국도로공사 등 국내 굴지의 업체들과 함께 물류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공군 물류시스템의 높은 경쟁력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공군의 군수물자 수송과 전군의 항공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60수송전대는 물자발송 계획과 운송수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물류정보망인 공군 수송정보체계를 가동, 연간 600회, 총 150톤 가량의 비효율적인 운행을 감소시켜 연간 약 1억원의 수송비용을 절감했으며 수송 기간도 기존보다 평균 2일이나 단축시켰다.

최근 미국으로부터의 발송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F-15K 전투기의 수리부속도 해외 발송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10여 단계의 절차와 20여일

간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여 연간 약 1억 1천 5백만 원의 수송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이번 한국물류대상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수상한 제60수송전대의 김동준 대령(제60수송전대장, 공사31기)은 "업무성과를 계량화하는 BSC(Balanced Score Card) 성과관리체계와 국제표준 경영시스템인 ISO 9001을 연계하여 표준화된 물류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 이번 수상의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가 물류체계 전반에 걸쳐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국토해양부장관



김 충 식

해남군군수

해남군은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33,475ha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쌀 82천여톤을 비롯하여 고구마 28천톤, 배추 335천톤, 양파 75천톤 등 연간 600천여톤의 농산물을 생산 유통하고 있다.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수도권이나 부산, 대구 등 대도시로 출하·유통되고 있으나 수도권 등 소비지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상황 등 물류여건이 취약함. 따라서 물류의 효율화 및 물류혁신 시책 추진, 농어민 또는 유통업체에 대한 제반지원 시책을 군정의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2007년 1월에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신설하고 사업단내에 유통기반담당을 신설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가공산업 확충,

집하 및 공동작업장과 저온저장고 지원, 물류표준화 사업 추진 등을 전담케 하여 농산물유통 및 물류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조직을 정비하였다.

물류표준화 사업추진을 통한 물류의 현대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05~'08년까지 33개소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게차 17대, 포장기 7대, 콜드체인용 냉동차량 1대, 운반상자 67,000개, 파렛트 2,200개, 기타 선별·포장기 등 물류시설장비를 지원하여 물류효율성 제고는 물론 상·하역 작업의 기계화와 일관 수송체계의 구축, Cold-chain 시스템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물류유통과 IT기술의 접목을 통한 선진물류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u-IT 확산 사업에 공모하여, 고품질 쌀 브랜드화 육성을 위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인프라구축 사업에 선정되므로써(사업자: 옥천농협 RPC), 농산물 재배 단계의 안전성 등 제반정보를 관리하고, 구매 및 저장·가공 및 출하는 물론 재고, 주문, 판매 등에 첨단 IT기술을 접목하여 차세대 선진 물류시스템 구축 등 혁신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김 천 일
(주)청우물류 대표이사

2008년 한국물류대상 국토해양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음으로써 유수의 대기업

과 견줄만한 능력을 과시하였다.

(주)청우물류는 전방위적 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업물류·국가물류의 효율 극대화에 기여, 선진국형 Management, 기업물류운송 Outsourcing을 통한 물류비 절감, 물류공공부문 Outsourcing을 통한 물류비 절감, 물류장비의 현대화 및 효율화,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 친환경적 물류활동, 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화를 도입하여 실시간 관리를 함으로써 고객·소사장·화주기업에 감동경영을 함은 물론, 물류혁신과 선진물류 구현으로 물류정보화·전산화에 기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지역물류업계를 이끌고 있다.

(주)청우물류라는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으려면 여타 회사들과 차별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보고 선진적인 여러 차별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직영차량 운영부문에서의 '소사장제 도입'이다. 이런 내용의 소사장제를 처음 도입한 대한제당은 배송부문을 청우물류와 전격적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이후 소사장제는 더욱 빛을 봐 주변 공장으로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 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이익을 책임지는 효과적인 운영방법으로 잘 운용되고 있다. 특히 직원들과의 상하관계에서 수평관계로는 운전자들도 소사장으로 신분이 상승되면서 책임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능동적으로 일을 하여 Win-Win하는 제도로 확고하게 뿌리내렸다. 이제 이 성공적인 소사장제를 여타 물류업계에 서도 벤치마킹, 하나의 경영기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를 계기로 청우물류가 업계의 선두주자답게 물류업계에 널리 알려졌다. 특히 이 점을 높이 사 '서울신문' 대한민국 경영혁신기업 물류산업부문에서 '07년 대한민국 우수기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청우물류는 화물운송에 있어 유진그룹 물류 부문 로젠(주)의 각 거점지역 TM(터미널)에 투입되어 경쟁우위 선점, 경제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재)우정사업진흥회의 수도권, 경상권 우편물류의 원활한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2004년 이후 꾸준한 증가로 현재 月 평균 1,500여 대 이상을 공급하여 국가 차원의 물류비 개선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수십 년간 물류경험의 결과물이다. (재)우정사업진흥회(동부지사·서부지사), 유진그룹 물류부문 로젠(주), (주)KCFEED, 대한제당(주), 삼양물류(주), (주)코트렌스 대구·울산지사 등 기업물류 운송 Outsourcing을 책임 운영하여 획기적으로 기업물류비 절감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화물과 주선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능률화/효율화로 물류비 절감, 개별화물 및 개인 차주별 용차(용역차량)를 꾸준히 운영 관리하여 기업·개인 간 win-win 전략으로 서로의 이익을 책임지는 효과적인 운영방법 운용하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양재생

은산해운항공(주) 대표이사

은산해운항공(주)(대표이사 양재생)은 지난 1993년 설립된 이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오다 마침내 지난해 국내 4,000여 국제복합운송 주선업체 가운데 해상 수입 1위, 수출 5위에 오르는 기업을 토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준의 복합운송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기업 가운데 랭킹 200위내에

드는 곳이 거의 없다는 면에서 은산해운항공(주)의 성장세는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또한 지난 2002년 부산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경기대회 당시 성화 및 관련 물자의 41개국 운송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제사회로부터 호평을 얻은바 있는 은산해운항공(주)은 현재 북남미를 비롯하여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일본 등을 아우르는 세계 120여개국의 파트너와 에이전트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은산해운항공(주)의 성장 뒤에는 확고한 서비스체계 구축과 차별화된 고객중심 서비스가 있다.

은산해운항공(주)은 수·출입 화물의 선적·적출 및 서류처리, 통관, 내륙운송, 선적서류 핸들링, 자체 수출입 EDI시스템을 통한 세관 전송업무, 은산물류 컨테이너터미널과 은산CFS를 통한 수·출입화물의 웨어하우징, 스토리지 등 실질적인 복합운송업무를 일괄 수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최상의 운임 경쟁력과 최적의 선박 스케줄로 업무수행 능력을 업계에 인정받아 왔다. 특히 은산해운항공(주) 부산항에 입항하는 냉동수산물을 제3국으로 운송(환적화물 운송)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CFS(화물조작장)에서 소량 화물(LCL)들을 혼재해 세계 각지에 보내는 LCL CONSOL 서비스로 호평 받아 왔다.

은산해운항공(주)은 지난 2002년 양산CY/CFS를 개소한다 이어 지난 4월 13일 부산신항만 물류 배후단지에 자체물류센터(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신항만CY/CFS)를 개소해 관련업계로부터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신항만 개발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부산경남권의 물류인프라 구성에도 일조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